

이정후 어깨 수술... MLB 첫 시즌 '아웃'

제주 전국장애학생체전 21개 메달 획득 육상 김하을 금메달... 당초 목표 16개 초과 달성

첫 시즌 성적 37경기 홈런 2개·타율 0.262 "MLB서 뒀 한 달 반의 시간, 잊지 못할 것"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수술대에 올라 빅리그 첫 시즌을 조기에 마감한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18일(한국시간) "이정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났고, 어깨 수술을 권유받았다"며 "이정후는 몇 주 안에 왼쪽 어깨 관절와순 봉합 수술을 받는다. 2024년에는 그라운드에서 서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파란한 자이디 야구부원 사장은 "이정후는 6개월 동안 재활할 것이다. 올 시즌에는 뛰기 어렵지만, 의료진은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며 2025년에 이정후가 부

상 후유증 없이 복귀하길 바랐다.

이정후는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벌인 신시내티 레즈와 홈경기 1회초 제이머 칸벨라리오의 타구를 잡고자 뛰어올랐고, 펜스에 강하게 부딪혔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이정후의 왼쪽 어깨에 구조적인 손상(structural damage)이 발견됐고, 이정후는 17일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났다. 엘라트라체 박사는 세계적인 스포츠 분야 수술 전문 의사다. 국내 야구팬들엔 류현진(현 한화 이글스)의 어깨, 팔꿈치 수술을 집도한

이로 유명하다. MLB는 물론 전 세계 스포츠 스타 다수가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수술을 맡긴다. 지난해엔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이정후가 어깨 수술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정후는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2018년 6월 19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다.

재활 시계를 당겨 한 달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했지만, 이정후는 그해 10월 20일 대전에서 치른 한화 이글스와 존플레이오프 2차전 9회 말 수비 때 몸을 던져 공을 잡다가 왼쪽 어깨를 또 다쳤다.

결국 이정후는 2018년 11월에 왼

쪽 어깨 전하방 관절와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정후는 수술을 받은 뒤에도 재활에 속도를 내 수술 전 예상했던 6개월보다 빠른 4개월 만에 재활을 마치고 2019년 정규 시즌 개막전을 정상적으로 치렀다.

2023년까지 KBO리그에서 활약하며 통산 타율 0.340을 찍은 이정후는 올 시즌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달러의 대형 계약을 하며 빅리그에 입성했다.

이정후는 올해 MLB 37경기에서 타율 0.262(145타수 38안타), 2홈런, 8타점, 2도루, OPS 0.641을 올렸다.

곧 수술 일정을 잡고 재활을 시작하는 이정후는 디에슬레틱 등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MLB에서 뒀 한 달 반은 내 야구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육상 김하을(사진·제주동초6)이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마지막 날 제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선물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김하을은 전남 전국장애학생체전 마지막 날인 17일 목표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초·중 F35-37 포환던지기 경기에서 3m 78cm 던지며 1위에 올라 제주선수단에 아홉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육상 남자 중학교부 T20 400m에 출전한 오동근(서귀포중2)도 1분 10초 62로 귀중한 은메달을 획득했고 광양스포츠허브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초·중)S14 접영 50m 경기 처음 출전한 문승미(제주영지학교)는 1분02초18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따내며 전남 여자 초·중 SB 14 평영 50m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제주선수단은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9, 은메달 6, 동메달 6개 등 21개 메달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했던 16개를 뛰어넘는 맹활약을 펼쳤다.

제주선수단은 수영 손세운(아라중2) 3관왕, 역도 현태연(제주중앙여중2) 2관왕 등 다관왕도 배출했고 특히 손세운은 3년 연속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위영석기자

제주고, 황금사자기 16강 진출 좌절

제주고가 마운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78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제주고는 1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주말리그 왕중왕전을 겸해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서울 중앙고에 5-10으로 분패했다.

제주고는 1회 선취점을 내준 뒤 4회 들어 사사구 4개 등을 허용하며 5점을 헌납했다. 제주고는 5회말 공격에서 2점을 뽑으며 추격의 발동을 걸었다. 하지만 6회 3점, 7회 1점을 더 빼앗기며 8점차로 더 벌어졌다.

제주고는 7회말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3점을 따라붙었다. 추격은 거

기까지였다.

이날 경기에서 안타수는 제주고가 9개로 5점을 친 중앙고보다 더 많았다. 문제는 사사구였다. 선발부터 불펜까지 5명의 투수가 14개(사사구 3개 포함)를 기록하는 등 제구력 난조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제주고는 주말리그 후반기를 위해 지난 10일 부산을 방문해 2연전을 치른 뒤 13일 제주에서 훈련 후 곧바로 황금사자기 1회전을 서스펜디드 경기와 이날 경기까지 열흘간의 강행군으로 고갈된 체력을 회복하지 못해 분투를 삼켜야 했다. 위영석기자 yswil968@halla.com



레버쿠젠 '무패 우승' 19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끝난 2023-2024시즌 분데스리가 최종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2-1로 물리쳤다. 1904년 창단 이후 120년 만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지은 레버쿠젠은 이날 최종전 승리로 28승 6무(승점 90)를 기록,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제주Utd, 김천에 0-1 패

극심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유나이티드가 김천 상무와의 원정에서도 단 한골도 넣지 못하고 0-1로 패했다.

제주는 18일 저녁 김천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3라운드 김천 상무와 원정경기를

가졌다.

이날 제주는 볼 점유율 46%대 54%, 유효슈팅 4대4, 코너킥 6대2, 오프사이드 1대2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

제주는 리그 9위를 머물고 있으며 오는 26일 수원FC와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14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위영석기자

U17 월드컵대표 활약 제주출신 한석진 전북현대와 준프로 계약... K리거 예약

제주출신으로 2023 FIFA U-17 월드컵 대표로도 활약한 한석진(사진·전주 영생고 2)이 준프로 계약을 통해 K리거로 거듭날 전망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전북현대대는 지난 17일 U-18 전주영생고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석진(FW)을 비웃 서정혁(MF), 진태호(MF)와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U-18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우승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2023 FIFA U-17 월드컵 대표로 활약한 선수들이다. 특히 이번 준프로 계약 선수 중 유일하게 고교 2학년인 한석진은 전북 역대 최연소 준프로 선수로 미래가 더 밝은 선수다. 오프더블 상황에서 움직임과 빠른 스피드로, 크지 않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전북 유스 사상 최고 수준이다.

뿐만아니라 U-15 동대부속급산 중 시절 2년(2021, 2022년) 연속 K리그 주니어 득점왕과 K리그 유스



챔피언십 득점왕(2022년)에 올랐으며, U-18 전주영생고에 진학한 지난해에는 팀의 K리그 주니어 전반기 우승과 함께 당시 1학년임에도 경쟁한 선배들을 물리치고 리그 득점왕을 거머쥐는 등 탁월한 득점력을 뽐내고 있다.

앞서 제주축구의 명가 제주서초등학교 재학 당시인 2020년 제32회 차범근축구상을 수상하는 등 일찌감치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재목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위영석기자

경 제13회 어도초등학교총동창회 우리모두 한마음 체육대회 축



**총동창회장
김창주**

초대합니다

자원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어도초등학교 총동문 가족과 봉성리, 어음1리, 어음2리 및 3리 학구민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화합과 우정을 다짐하는 축제인 제13회 우리모두 한마음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4년 5월 26일(일) 오전 10시

장소 어도초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주최 어도초등학교총동창회

후원 봉성리, 어음1리, 어음2리

경기종목

장옷, 줄다리기, 배구(9인제), 게이트볼

■ 사견경기: 어도초등학교 골프동호회 골프대회

· 일시: 5월 12일(일) 12시30분 · 장소: 웰리시안CC

· 회장 김창주 (010-3694-0660)

· 수석부회장 김성진 (010-3696-3777)

· 사무국장 홍선주 (010-4691-3725)

· 총무 김경훈 (010-3698-1538)



어도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김창주